



2024년 참세상 주례토론회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정책과 정치 구조

최석진(홋카이도대)



1. 일본 전후체제의 특징

보수 본류 · 토건 국가 · 기업 복지

소득배증계획(1961~) ; 보수 본류 노선

● 이케다 하야토 내각(1960~1964년)이 1960년에 발표한 장기경제정책. 10년간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인당 소비지출 기준으로 10년간 2.3배 증가했다.

● 기시 노부스케 내각 (1957~1960년)의 미일 신안보조약 조인을 둘러싼 60년 안보투쟁 → 기시 내각 총사퇴 → 이케다 내각 출범: 개헌포기=전수방위=경무장+경제중심 (=보수 본류)노선으로 전환.



일본 열도 개조론(1972~) ; 경제위기와 토건국가

- 이케다 내각 이후 경제정책은 국시. 정부 역할은 산업정책 수립과 추진, 경제성장의 이익 재분배(이익정치체제의 형성).
- 중선거구제 효과-파벌 형성 촉진((정치자금) 및 수상권한의 약화, 정조회(자민당정무조사회) 중심의 이익 배분과 의원전문성 강화(족의원), 의원 후원회 활성화
→ 이익배분+세습정치 정당화?
- 정치가-관료 역할 분담
→ 관료주도



1962년 3월 국철(현JR) 우에노 역.
중학교 졸업 후 집단취업 풍경



工業の大規模再配置をテコに

- 태평양연안 대도시권 중심의 경제성장
도시 인구집중/농한기의 일시적(계절적) 농민공 증가.

- 자민당의 정치적 위기
도시문제(혁신 지자체 확산), 전통적 지지기반 해체위기
도시기반 정당(일본공산당/공명당)의 세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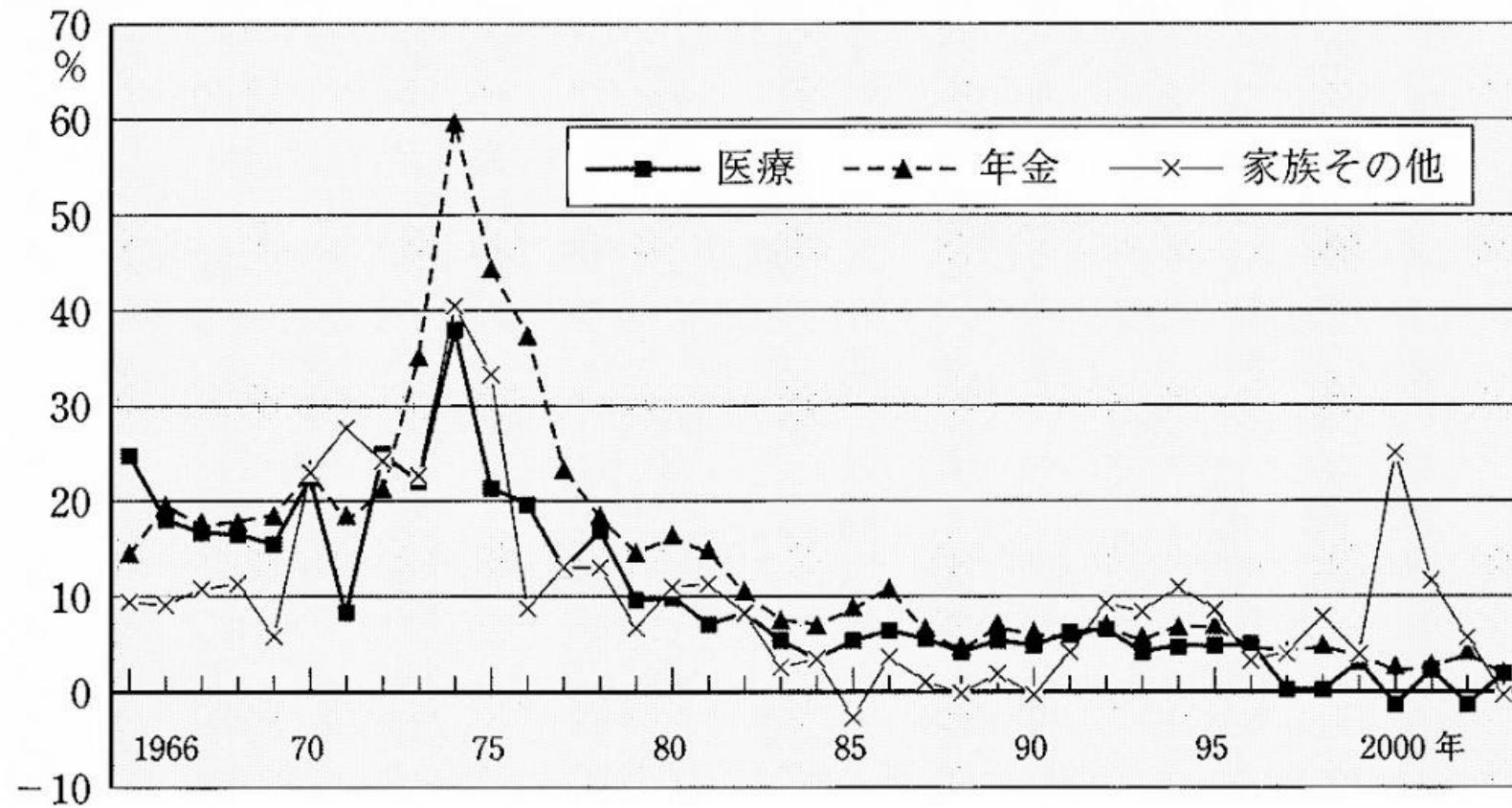
-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972~1974년)의 대응 전략
혁신 지자체 정책의 적극적 수용: 복지원년 선포된 1973년에 70세 이상 노인의료무상화 실시(이와테현 1960년, 아키타현·도쿄도 1969년 실시)
일본열도 개조론: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신칸센 건설 및 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

- 경제위기와 토건국가로의 변질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제조업 지방진출 급감.
80년대 후반의 엔고 영향으로 제조업 해외이전 증가.
지역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수단인 공공사업이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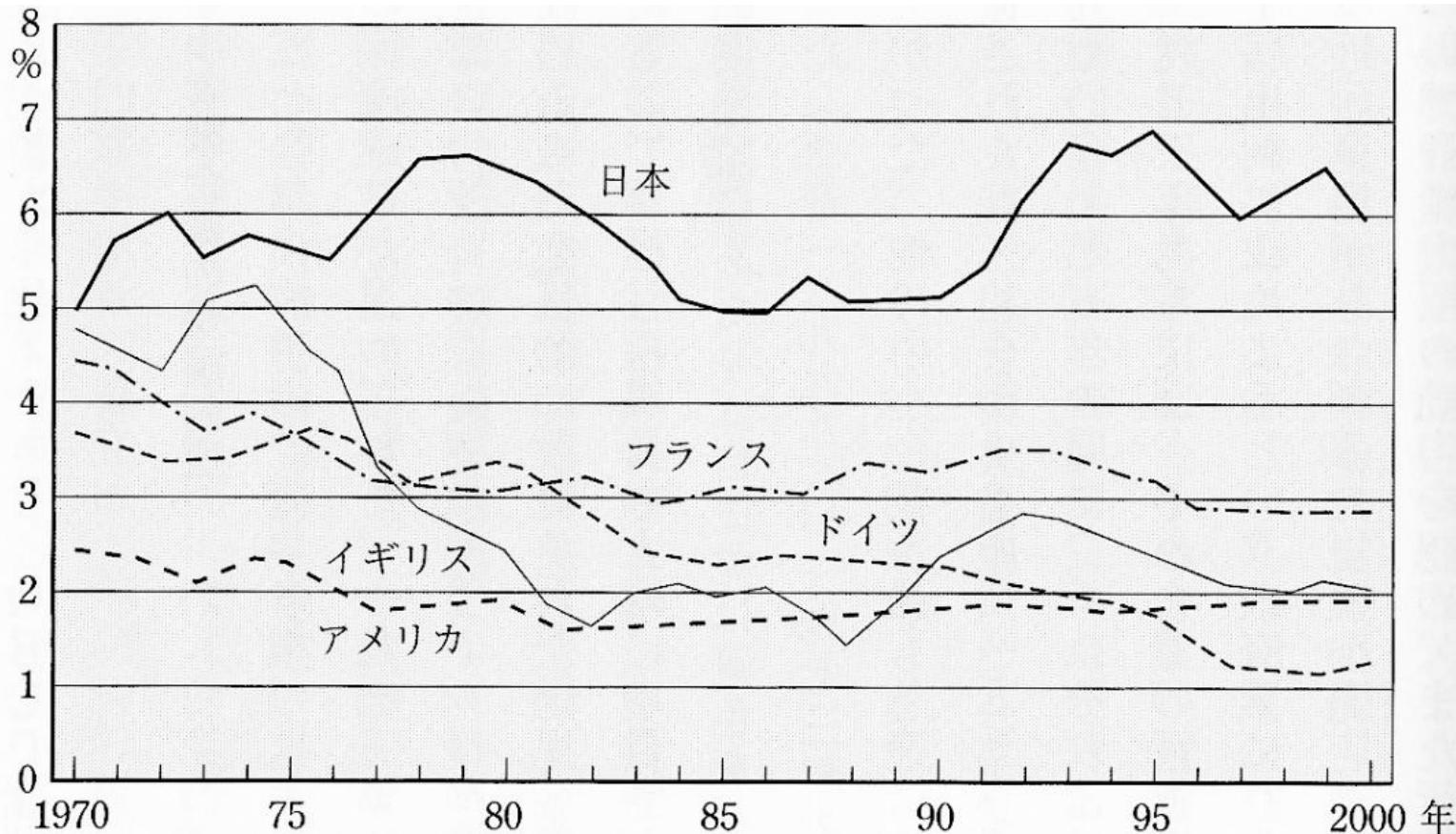


1967년 4월, 도쿄도 지사선거에서 당선 확정
후 만세를 부르는 미노베 료키치 후보

[사회보장급여,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분야별)]



[주요 선진국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



日本:「国民経済計算年報」 諸外国:OECD, National Accounts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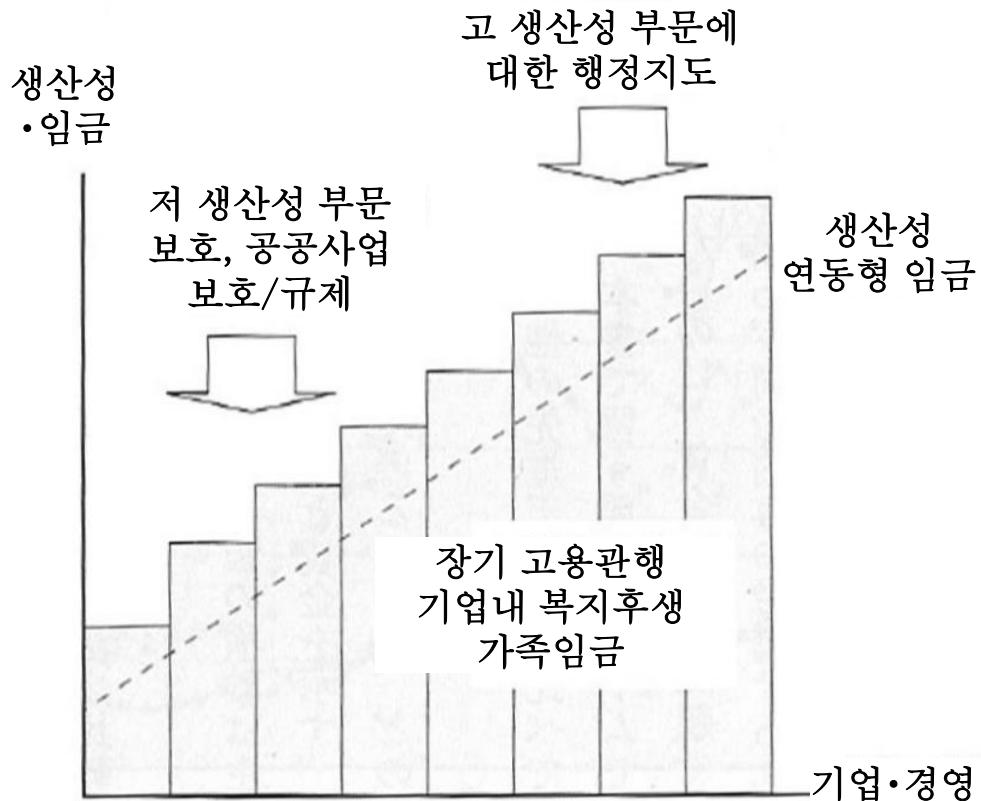
종신고용 관행·기업복지 ; 일본형 복지국가의 형성

- 1966년~1970년 까지 5년간 국민총생산(GNP) 명목 2.23배, 실질 1.74배 성장. 연평균 11.64% 성장. 68년에 일본 GNP 서독을 제치고 2위(2010년 중국 GDP 2위).
- 복지국가 3유형 (Esping-Andersen 1990)

레짐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주요 사회 섹터
자유주의	저	고	중	시장
보수주의	고	고	저	가족
사민주의	고	저	고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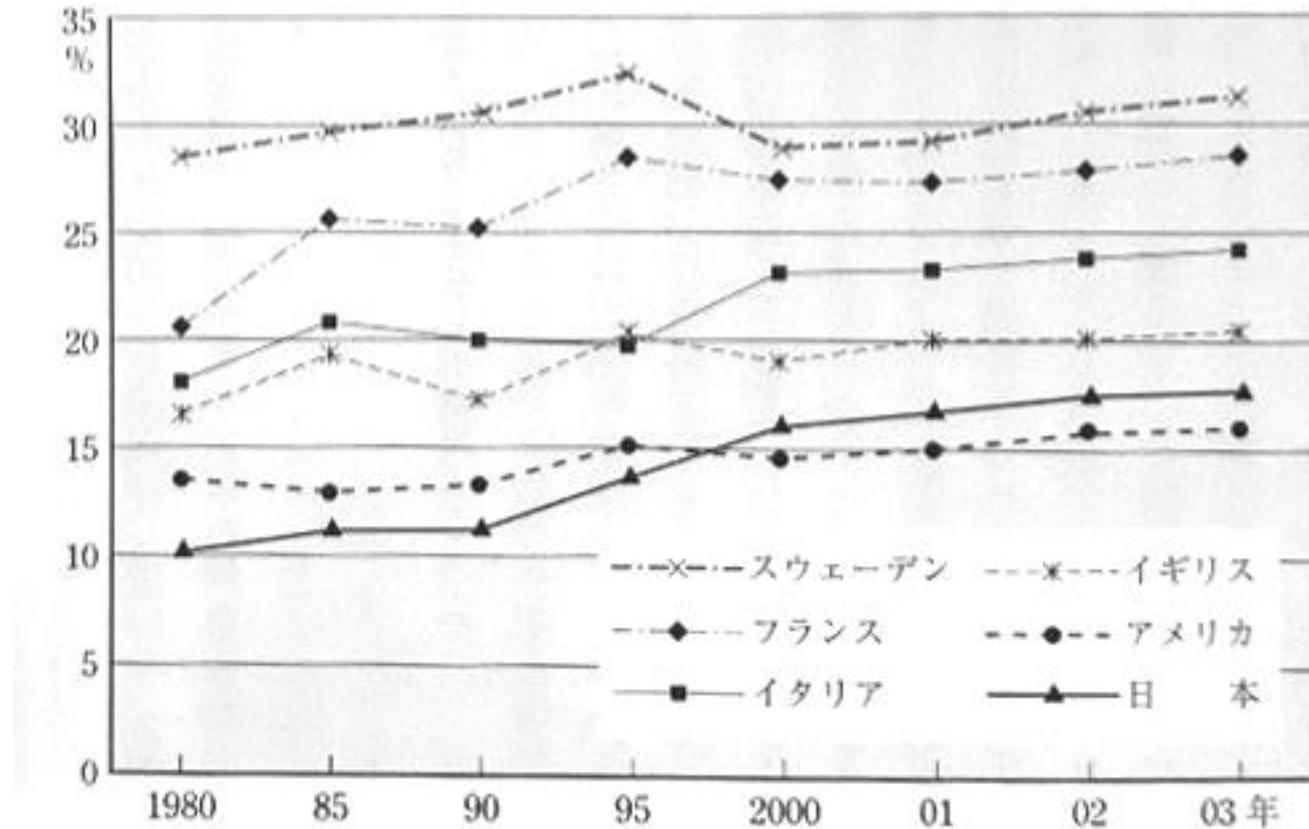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시장(상품) 중시+선별주의(자유주의?), 가족 중시(보수주의?)
고용 중시(사민주의?)

● 일본의 (구)고용 레짐(宮本2008)



- 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공무원 대기업, 자영업 등 직역별로 분립. 기업/업계 단위 중심으로 고용보장(남성가장 중심, 가족임금)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이 이를 보완.
- (가족주의)고용 레짐을 주축으로 한 생활보장. 사회보장지출 억제.
- 고용 레짐: 노사관계와 고용보장제도, 노동시장정책, 경제 산업정책 등이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둘러싸고 형성하는 연계관계.
- 행정지도: 관공서가 특정인이나 사업자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또는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지도, 권고, 조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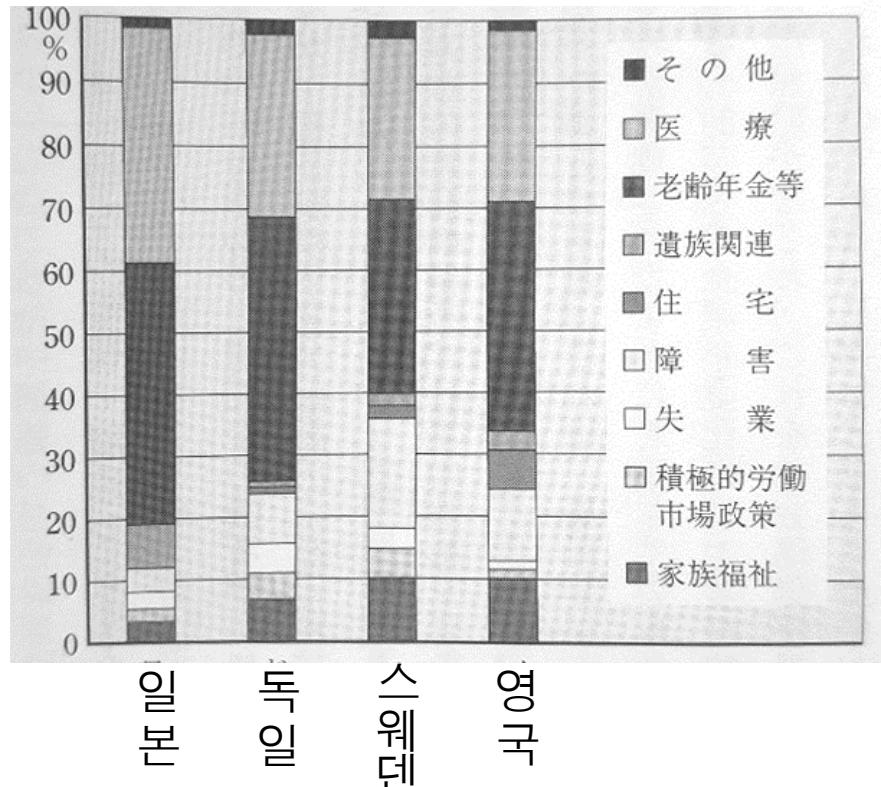
[주요 선진국 GDP 대비 사회적 지출]



일본의 복지 레짐의 특징 ; 소규모·지출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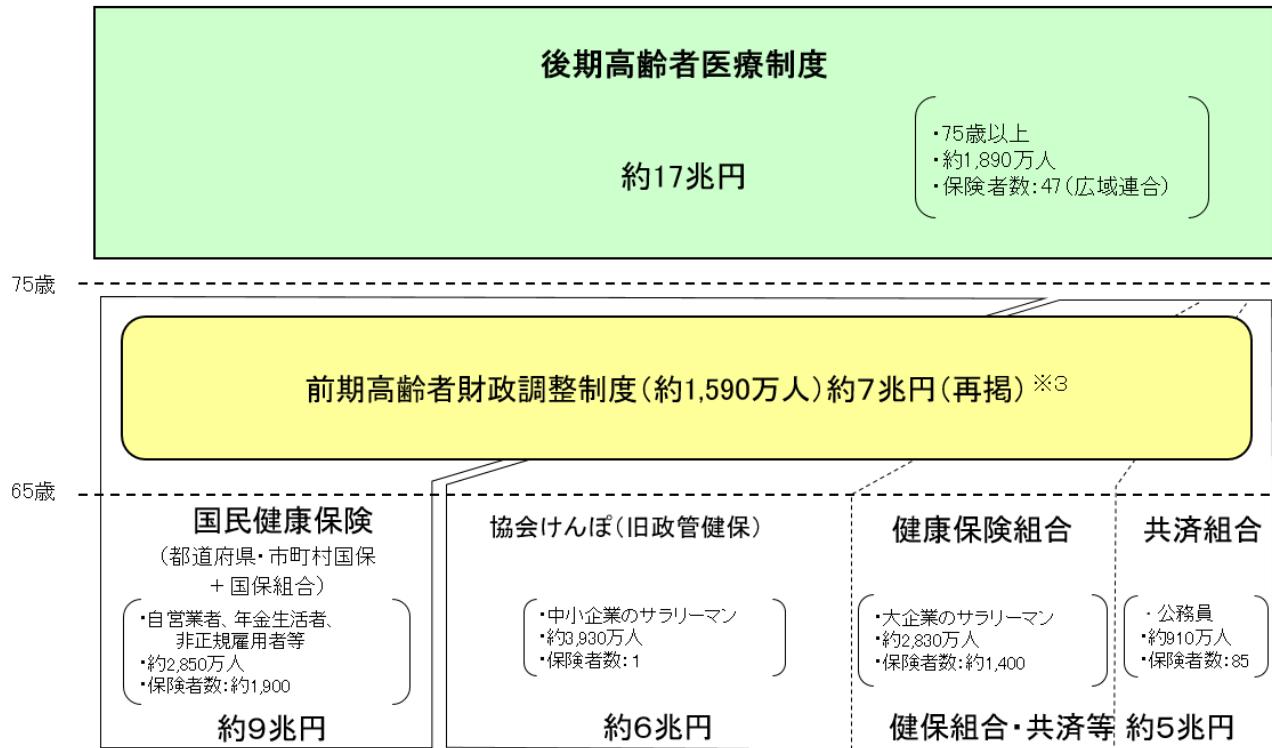
- 소규모 복지 레짐
- 사회보장 지출의 편중: 고용 레짐을 주축으로 한 생활보장으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이 인생 후반의 보장(연금, 고령자의료/유족 관련)에 집중.
- 장기고용 관행의 배경: 1960년 미이케 탄광 정리해고 사건의 교훈과 고도경제성장 시기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지출 내역 비교(2001년)]



[직역 분립형 의료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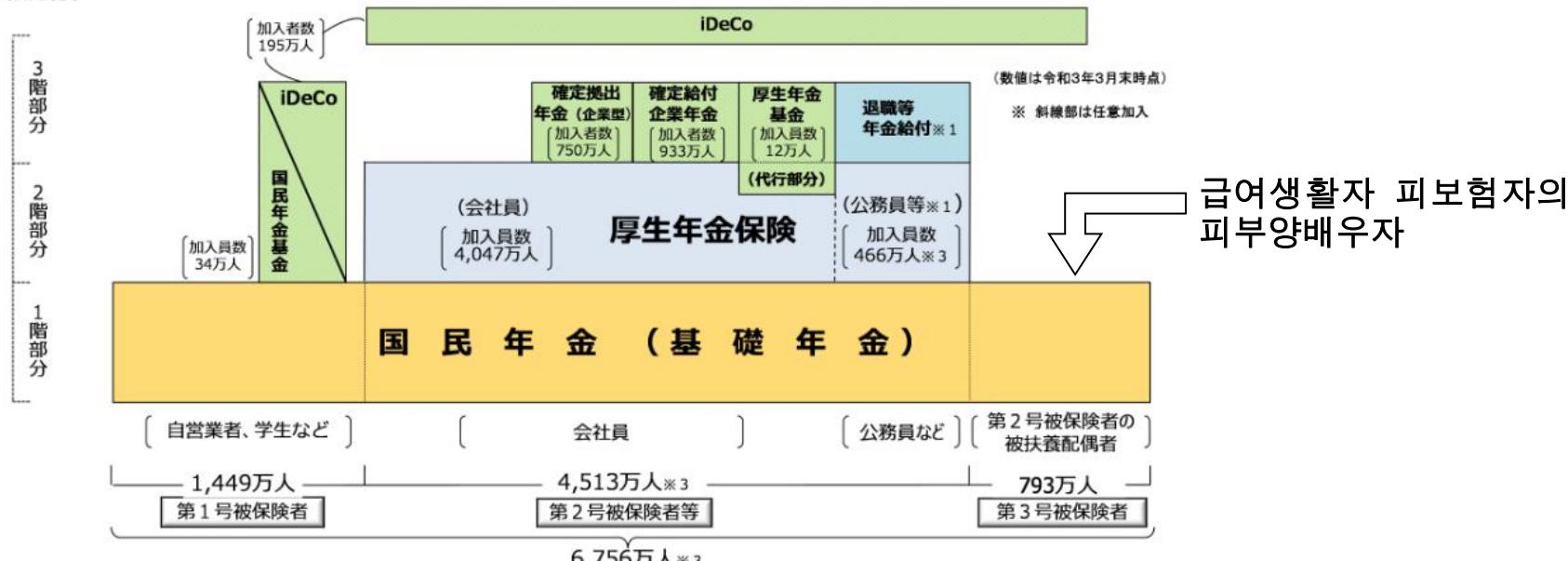
医療保険制度の体系



[지역 분립형 연금제도]

年金制度の仕組み

- 現役世代は**全て国民年金の被保険者**となり、高齢期となれば、**基礎年金**の給付を受ける。（1階部分）
- 民間サラリーマンや公務員等は、これに加え、**厚生年金保険**に加入し、基礎年金の上乗せとして報酬比例年金の給付を受ける。（2階部分）
- また、希望する者は、iDeCo（個人型確定拠出年金）等の**私的年金**に任意で加入し、さらに上乗せの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3階部分）



※1 被用者年金制度の一元化に伴い、平成27年10月1日から公務員および私学教職員も厚生年金に加入。また、共済年金の職域加算部分は廃止され、新たに退職等年金給付が創設。

ただし、平成27年9月30日までの共済年金に加入していた期間分については、平成27年10月以後においても、加入期間に応じた職域加算部分を支給。

※2 第2号被保険者等とは、厚生年金被保険者のことをいう（第2号被保険者のほか、65歳以上で老齢、または、退職を支給事由とする年金給付の受給権を有する者を含む）。

※3 公務員等、第2号被保険者等及び公的年金全体の数は速報値である。

出典: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stf/nenkin_shikumi_03.html

[연금 지급액 기준 예]

부부 중 1인이 평균급여(43.9만엔)로 40년 재직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수령액 : 2024년 4월분



Googleカスタム検索

検索

> 採用情報

令和6年4月分（6月14日（金曜）支払分）からの年金額

法律の規定により、令和5年度から原則2.7%の引き上げとな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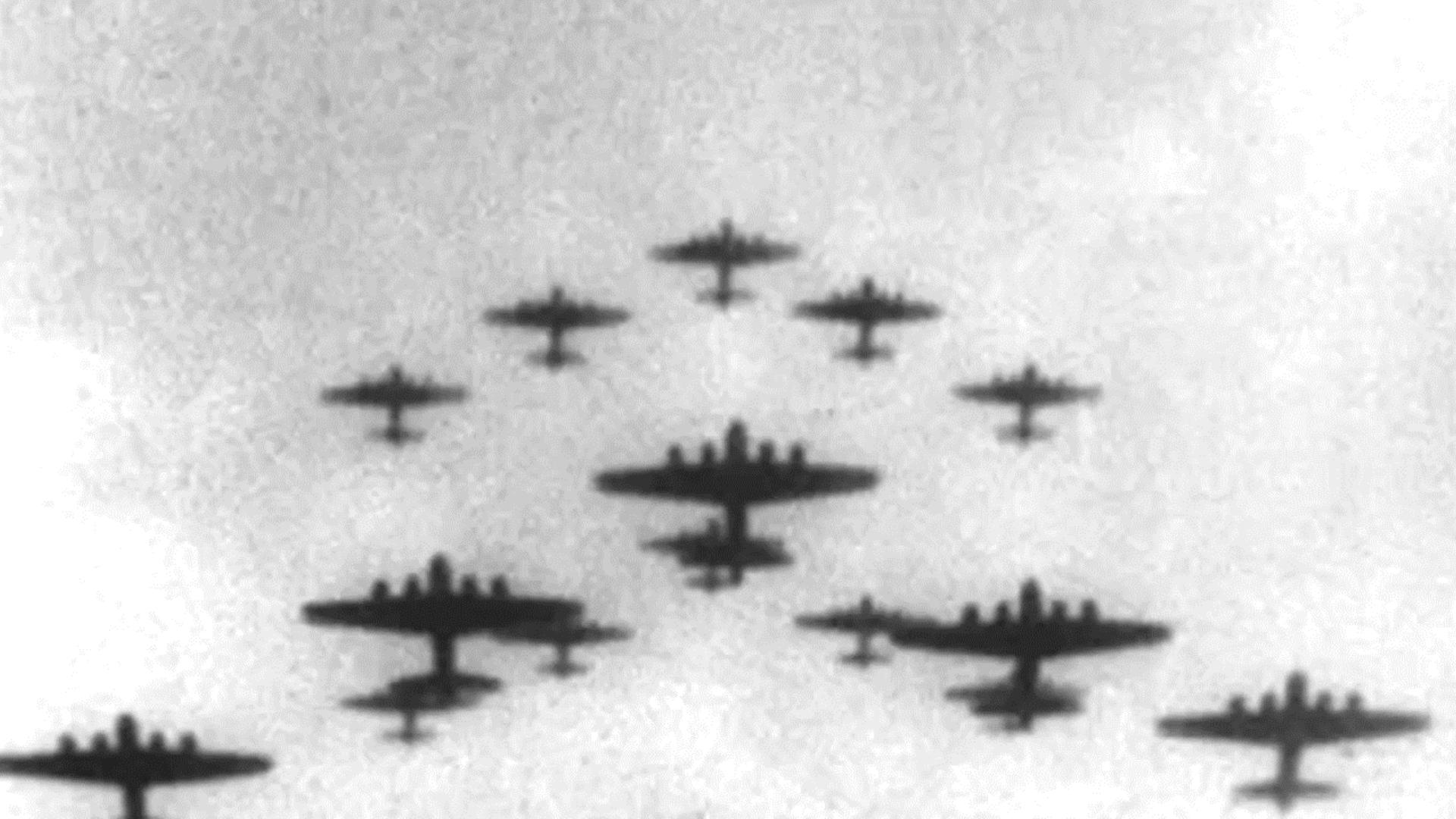
なお、令和6年5月分以降の年金額が全額支給停止となる方などは、5月15日（水曜）にお支払いします。

令和6年度の年金額の例（昭和31年4月2日以後生まれの方の場合）

	令和6年度（月額）	令和5年度（月額）
国民年金（老齢基礎年金（満額））※1	68,000円	66,250円
厚生年金（夫婦2人分の老齢基礎年金を含む標準的な年金額）※2	230,483円	224,482円

※1 令和6年度の昭和31年4月1日以前生まれの方の老齢基礎年金（満額）は、月額67,808円です。

※2 平均的な収入（平均標準報酬（賃与含む月額換算）43.9万円）で40年間就業した場合に受け取り始める年金（老齢厚生年金と2人分の老齢基礎年金（満額））の給付水準です。



Japan as no.1: 버블경제

- 1,2차 석유파동을 극복한 일본경제(저에너지 소비 산업으로 재편, 감량경영, 자동화) 80년대 황금기, 일본방식의 자부심, 에즈라 보겔 저 “Japan as no.1” 출간. 소니 워크맨(79년) 등 일본 가전제품 세계시장 주도. (3K재정적자, 국철(87)/전신선화공사(85)/전매공사(85) 민영화)
 -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 급등, 정부와 중앙은행이 엔고 불황 대책으로 초저금리 정책 도입. 유동성 증가로 인한 주식/부동산시장 과열= 버블 경제. 87년 NTT 주식공개.
 - 기업 “재테크” : 기업이 본업 이외에서 이익을 늘이고자 유가증권 운용에 주력하는 것. 버블시기 많은 상장기업 사이에 유행.
-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수가 1979년 출간. 전후 일본경제의 고도경제성장 요인을 분석. 일본식 경영을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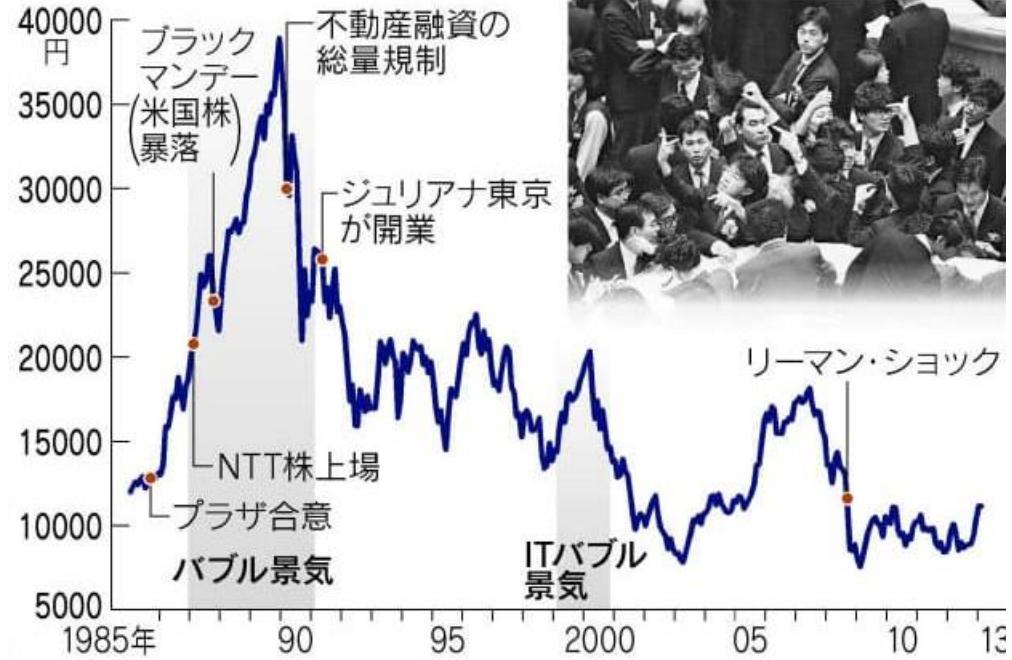


2. 전후체제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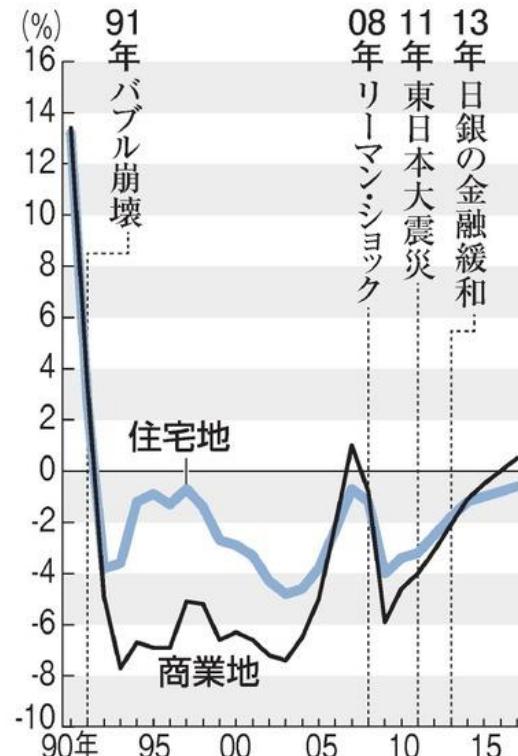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신자유주의 개혁의 시대

버블 경제의 종언: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 1989년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연호 변경.
- 버블붕괴: 1991~1993년에 걸쳐 주식과 지가 폭락.



全国の基準地価の推移
前年比変動率。国交省による



일본개조계획: 신자유주의 개혁(정계發)

● 오자와 이치로가 1993년 5월에 발간한 정책 제언서. 동년 6월 자민당을 탈당 신생당을 창당 → 1993년 8월 호소카와 내각(비자민 비공산 연립내각) 발족 → 55년 체제 붕괴 → 1994년 중의원 소선거구제 도입(1996년 10월 첫 실시)

● 주요 내용: 보수주의+신자유주의 정책, 대담한 세제개혁 (소비세 10%, 소득세/주민세 반액,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등), 무역자유화, 수상관저 기능 강화, 정권교체 가능한 양당제 실현을 위해 소선거제 도입 등 정치개혁 실현. 군사분야를 포함한 적극적 국제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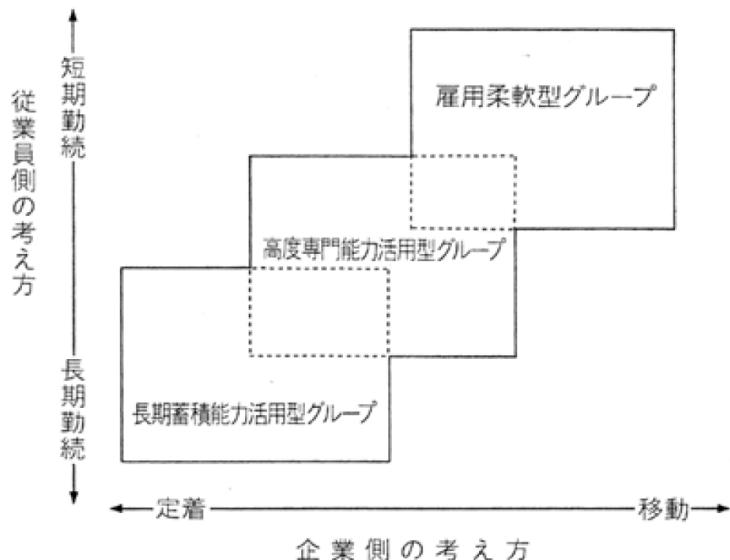
● 2009년 8월, 오자와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반대 슬로건(국민생활이 제일)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신자유주의 개혁(재계發)

- 낫케이렌(현 게이단렌, 2002년 <구>게이단렌과 통합)이 1995년 발표한 보고서.
- 종신고용/연공임금 중심의 일본적 고용의 재검토를 주창. 당시의 급격한 엔고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건비 억제를 목적으로 한 ‘고용 포트폴리오’ 도입을 촉구.
- 정규직에 해당하는 ‘장기축적능력활용형’과 전문능력을 발휘하는 ‘고도전문능력활용형’에 더해 현재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용유연형’을 설정.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図表1 企業・従業員の雇用・勤続に対する関係



注：1. 雇用形態の典型的な分類

2. 各グループ間の移動は可

出所)『新時代の「日本の経営』』 32頁

巡る非正規労働者と経済状況を

- | | |
|-------|------------------------|
| 1985年 | 「プラザ合意」。その後に円高進む |
| 90年 | 非正規雇用の割合が2割を超える |
| 91年 | バブル崩壊、景気後退へ |
| 95年 | 日経連が「新時代の日本の経営」を公表 |
| 97年 | 金融危機 |
| 99年 | 労働者派遣の対象業務を原則自由化 |
| 2003年 | 非正規の割合が3割を超える |
| 04年 | 製造業への労働者派遣を解禁 |
| 08年 | リーマン・ショック。日比谷公園で年越し派遣村 |
| 13年 | アベノミクスで大規模な金融緩和が始まる |
| 16年 | 非正規雇用者が2000万人を超える |
| 20年 | コロナ禍で休業が続出した非正規が困窮 |

東京新聞(2023年2月27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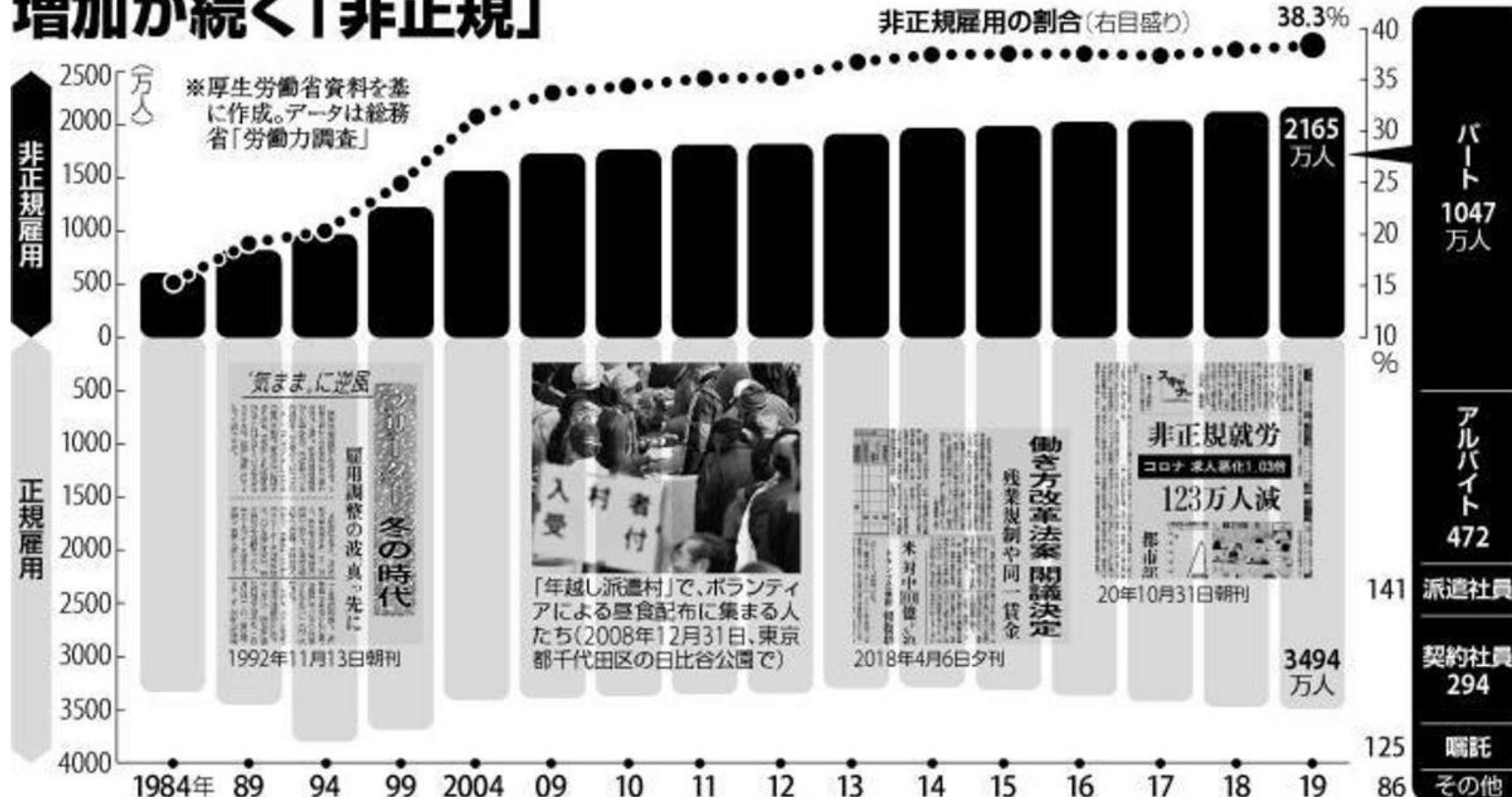
노동자 파견 대상업무를 기준 26개 업무에서 원칙적 자유화. 금지업무: 건설, 항만운송, 경비, 의료, 제조업

노동자 파견 금지 대상업무에서 제조업 제외.

トヨタ自動車東日本 の派遣スタッフ大募集!



増加が続く「非正規」



고이즈미 개혁: 오자와 플랜의 실현(?)

● 고이즈미 정책운영 특징

① 쉽고 간단한 구호

“구조개혁 없이 경기 회복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에, 지방이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② 싱글 이슈 전략

“우정민영화 찬성인지 반대인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③ 작은 정부 지향

④ 새로운 정책결정 프로세스

“경제재정자문회의”



土光臨調
(第2次臨時行政調査会)

1981年3月～83年3月 設置

鈴木善幸→中曾根康弘 首相



土光敏夫
(元経団連
会長)

メンバー

委員8人(瀬島龍三・伊藤忠
商事相談役ら)、

専門委員21人(牛尾治郎・
ウシオ電機会長ら)

首相の調査審議機関 位置づけ

臨時行政調査会設置法 根拠法

3公社(国鉄、電電公社など)

5現業(郵政・造幣など)民営化、 テーマ
行政組織の見直し

정권교체: 탈 신자유주의/토건/관료주도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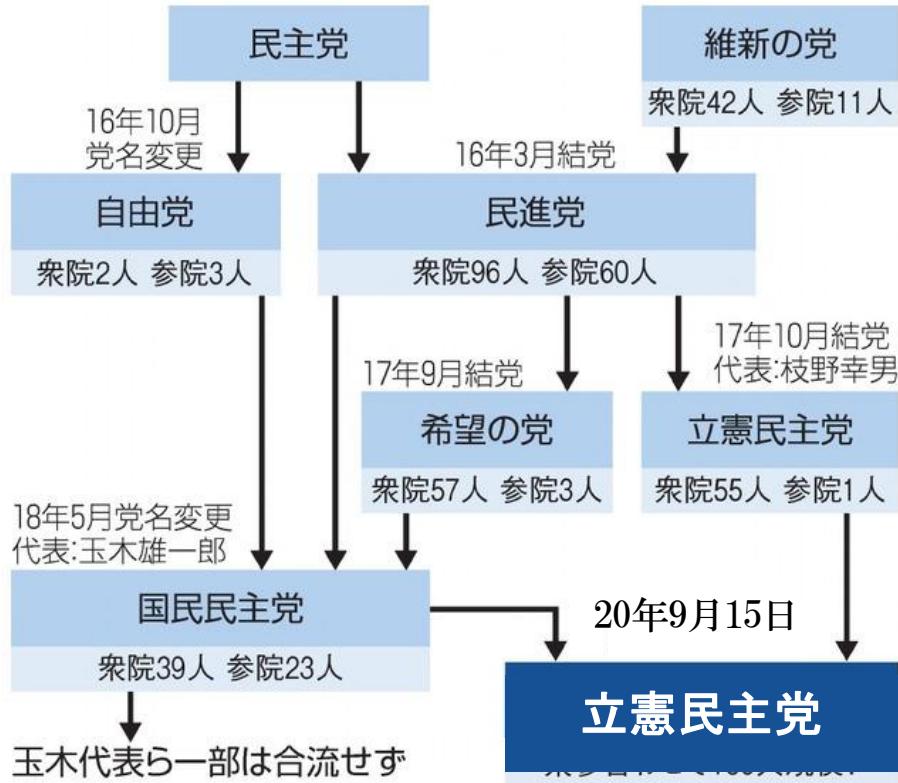
- ‘국민 생활이 제일(최우선)’ ,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 ‘정치주도’
- 선거공약: 얀바댐 공사중지(건설재개), 어린이 수당 월 2만6천엔(반액 지급), 월 7만엔 최저보장연금 신설(미실시), 후텐마 미군기지를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오키나와현 내 이전)



(구)민주당 세력의 변천

旧民主党勢力の変遷

議員数は結党、党名変更時の人数(立憲民主は17年衆院選直後、希望の党は直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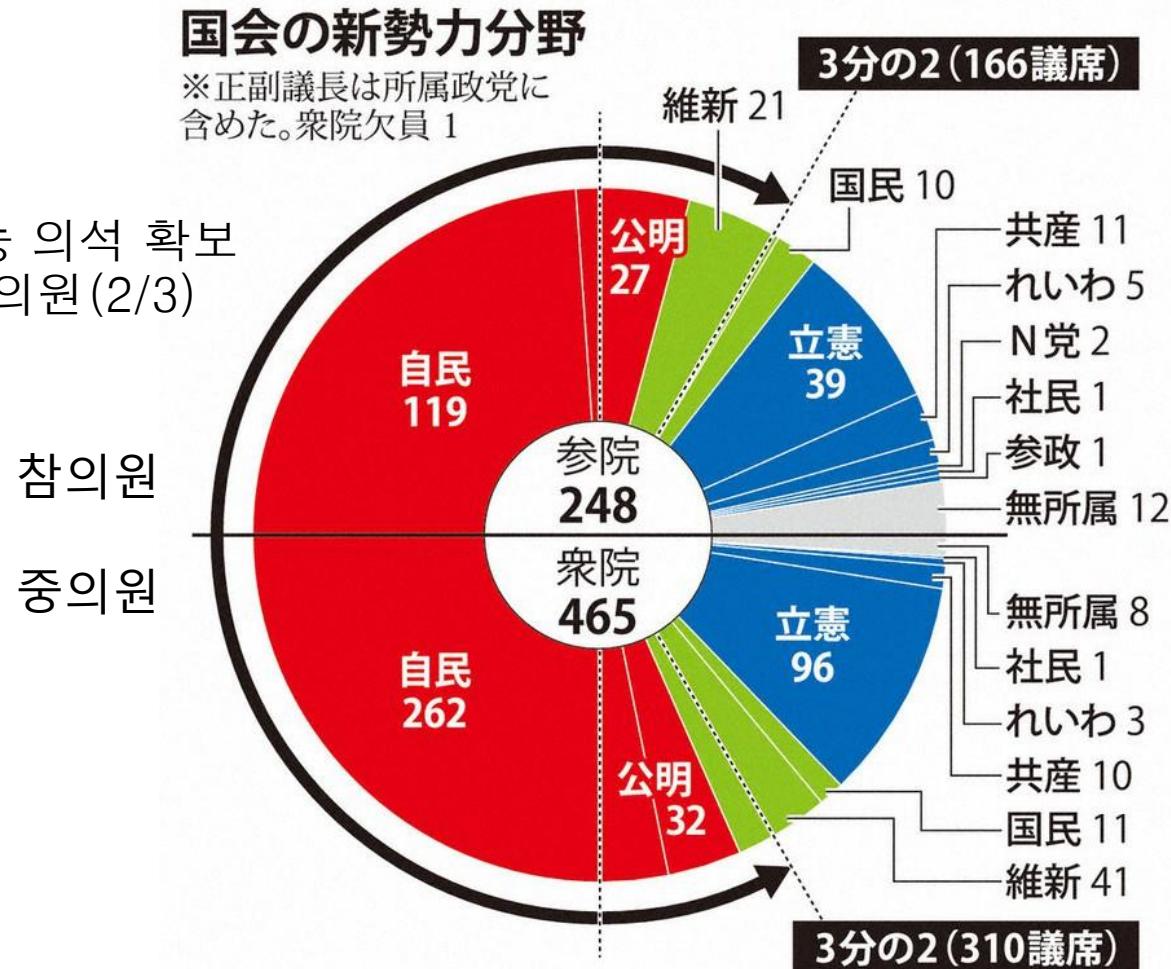


安倍首相、政権復帰後の歩み

2012年12月	衆院選で自公が勝利し、第2次安倍政権発足
13年 4月	日銀が異次元の金融緩和に乗り出す
7月	参院選で自公が圧勝。「ねじれ」を解消し衆参両院で過半数に
9月	20年の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開催が決定
12月	特定秘密保護法成立
14年 4月	消費税率が5%から8%に
5月	内閣人事局発足
7月	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を閣議決定
12月	衆院選で自公が3分の2を超える圧勝
15年 9月	無投票で自民党総裁に再選 安全保障関連法が成立
16年 7月	参院選で与党が勝利。衆参両院で改憲勢力が3分の2を超える
17年 2月	森友学園への国有地売却問題が表面化
3月	総裁任期を連続3期9年に延長
5月	加計学園の獣医学部新設めぐり「総理のご意向」などと書かれた文書が表面化
6月	「共謀罪」法が成立
7月	東京都議選で自民党が歴史的大敗
10月	衆院選で自民が圧勝。与党で3分の2超の議席確保
18年 3月	森友問題で財務省による公文書改ざんが発覚
9月	総裁選で石破茂氏に勝利し3選
19年 7月	参院選で与党が改選過半数獲得も、改憲勢力3分の2は届かず
10月	消費税率が8%から10%に
20年 3月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受け、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の1年延期を決定 緊急事態宣言を発出
4月	

(2022년 7월 현재) 의석분포

- 개헌세력 개헌가능 의석 확보
중의원(2/3) & 참의원(2/3)





新し資本主義実現
日本



3. 포스트 전후체제 경쟁

아베노믹스, 새로운 자본주의, 정권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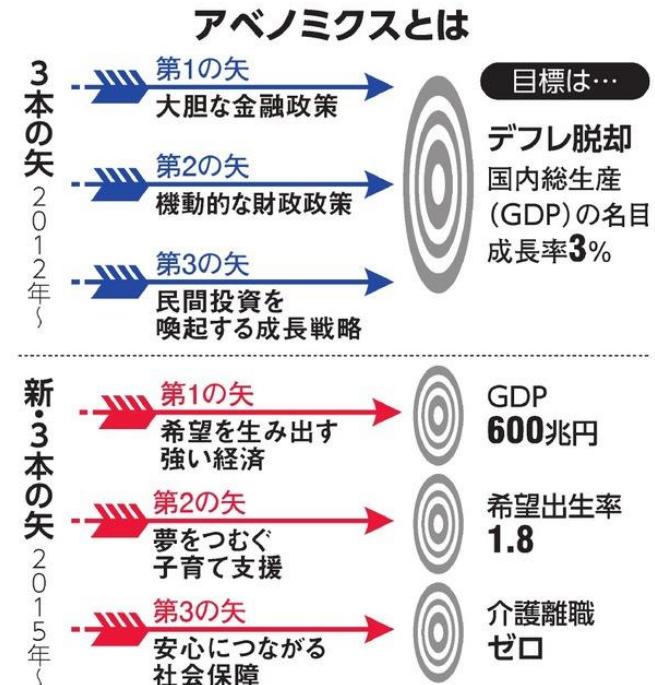
세 개의 화살 : 아베노믹스[2012년~]

●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

- ① 대담한 금융정책
- ② 적극적 재정정책
- ③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 일본(중앙)은행의 차원이 다른(쿠로다 전 총재) 양적 완화 국채매입/マイ너스 금리 → 엔저/기업대출 유도 → 수출/설비투자 증가 → 임금↑ → 물가↑ → GDP↑ 선순환 구조 → 디플레이션 탈출

● 실제, 양적완화 → 엔화↗ 주가↑ → 내수진작 미미, (외부압력)물가↑ → 일시적 임금↑ 압력. 오히려 기록적 엔저로 물가상승(실질임금 하락)과 국부 유출 우려. 아베노믹스의 궁극적 목적은 개헌



기시다 내각 : 새로운 자본주의(2021년~)

- 기시다 총리의 정책 방향 : 신자유주의로 부터의 전환, 새로운 자본주의
- 새로운 자본주의 1. 구조적 임금상승 실현과 두터운 중산층 형성.
2. 국내 투자 활성화.
3.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 고이즈미 구조개혁 원상회복 없이 탈 신자유주의?
아베노믹스 계승한 새로운 자본주의?
- 아베 국장國葬비판 여론, 마이넘버 카드, 파티권 문제 등으로 지속적 지지율 하락과 대안부재(파티권 회계부정 연루 혐의로 중견급 대거 총리 후보군에서 탈락)



岸田内閣の主要政策01/
新しい資本主義

「時代の転換点」とも言える構造的な変化と課題に直面する中、賃上げや企業の投資意欲など足下の前向きな動きを更に力強く拡大すべく、新しい資本主義の実現に向けた取組を加速し、新時代にふさわしい経済社会の創造を目指していきます。

新しい資本主義 01

構造的賃上げの実現 分厚い中間層の形成

30年ぶりとなる高水準の賃上げを持続的・構造的なものとするため、「への投資」を強化し、リスクリソースによる能力向上支援。個々の企業の実態に応じた賃料改定の導入、成長分野への労働移動の円滑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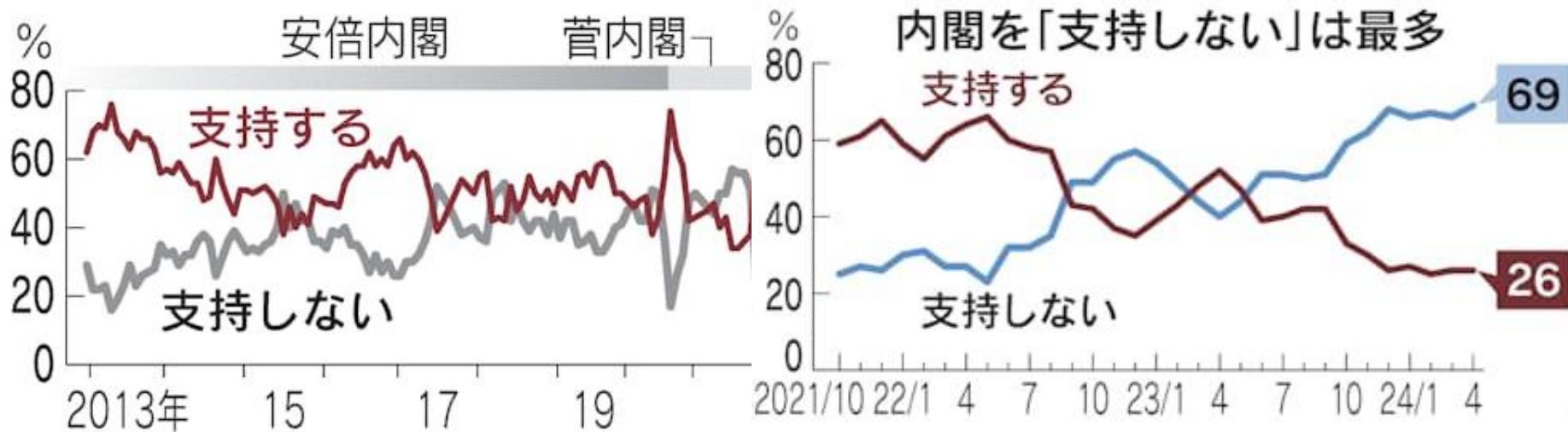
リスクリソースによる能力向上支援

個々の企業の実態に応じた賃料改定の導入

成長分野への労働移動の円滑化

家計所得の増大

위기의 자민당 : 위험수위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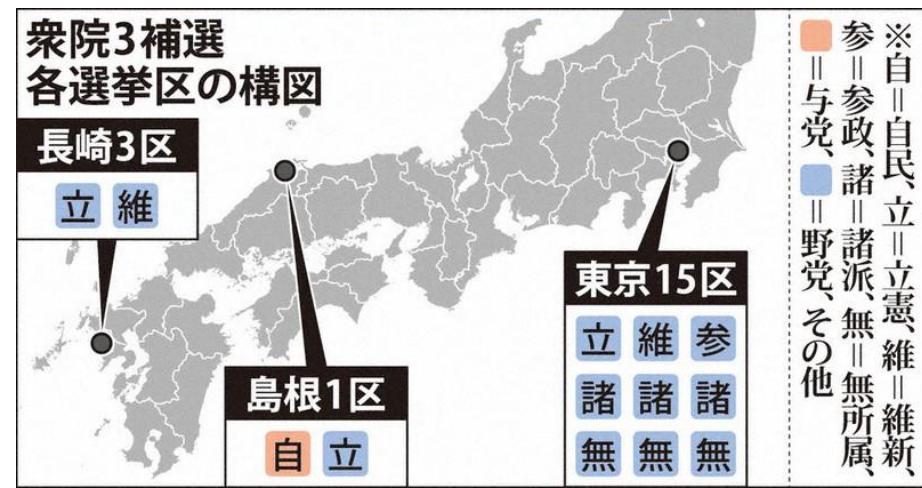


日本経済新聞(2022年5月30日)

日本経済新聞(2024年4月30日)

비등하는 정권교체 여론 : 민주당 정권?

- 보궐선거 입헌민주 전승 : 도쿄15구(자민당 무공천, 도민퍼스트(코이케 지사)+국민민주 추천 오도타케 후보 5위, 입헌민주 당선), 시마네1구(자민당 호소다 히로유키<11선, 전 중의원 의장, 아베파 전신 호소다파> 지역구, 입헌민주 59% 득표), 나가사키3구(자민당 무공천, 유신회32%, 입헌민주68%)
- JNN 5월 조사, 입헌민주당 주도 정권교체 지지 48%(6%포인트 상승),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지속 34%



● 마이니치신문(5월18–19일 조사)

-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해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기를 희망 12%, 사임 희망 72%.
- 무당층의 약 80%가 총리교체 원해.
-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투표 정당은?
입헌민주당 25%(작년 8월 조사 10%)
자민당 15%(21%)
일본 유신회 12%(21%)
공산당 8%(5%),
레이와 신센구미 6%(8%),
국민민주당 4%(6%)
공명당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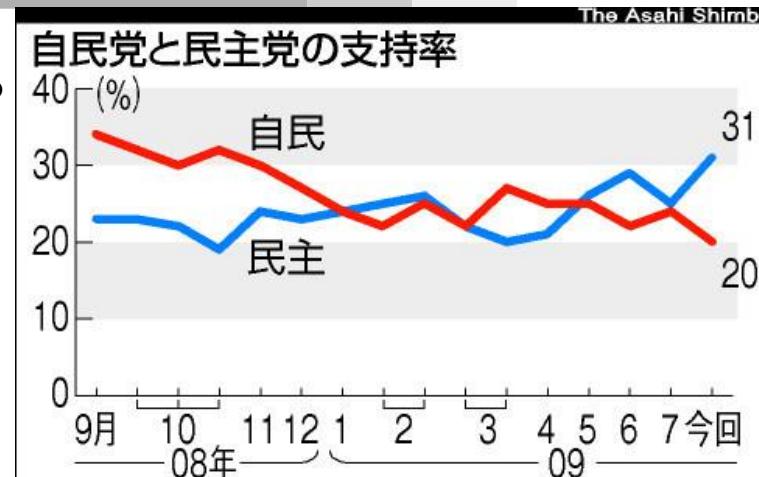
입헌+공산+레이와+국민 = 43%
자민+유신+공명 = 30%

- ## ● 일본 유신회 인기 하락 :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건설비 증가, 소속 의원의 연이은 물의.



● 2009년 정권교체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 자민당에 대한 실망 여론이 더 필요.
- 아사히신문사 2009년 7월 여론조사
총선 비례투표 : 자민당19%, 민주당42%
내각지지율 17%
자민 중심 정권 지속 희망 22%
민주 중심 정권 교체 희망 49%



朝日新聞(2009年7月19日)

● 야권 공투를 둘러싼 렌고와 마찰

- 일본공산당(전노련)과 렌고(총평+동맹) 대립

● 입헌민주당의 후보자 확보 문제(2021년 2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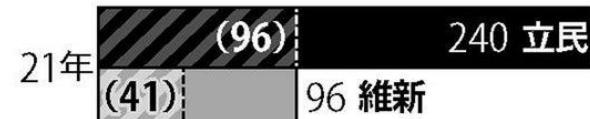
-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자 수 330명
- 중의원 정원 465명, 단독 과반 233명

◆過去の衆院選の立憲民主党と日本維新の会の候補者と当選者数

(うち当選者数) 「候補者数」
※追加公認を含む

2017年	(55人)	79人	立民
	(11)	52	維新

読売新聞(2023年4月27日)



내각 지지율/정당 지지율 추이

歴代内閣支持率と政党政権

朝日新聞(2017年5月29日)

